

# 순천만국가정원 개장 5주 만에 100만명 찾았다

## 아날로그에 AI 접목해 '호응' 애니메이션 입힌 즐기는 정원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 5주 만에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국가정원은 개장 첫 주 만에 21만 명의 관람객을 맞이한 데 이어 지난 6일까지 100만510명이 방문했다.

특히 황금연휴 기간인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14만 명이 정원을 찾았고, 4일에만 7만6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1일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부터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날로그 정원에 인공지능(AI), 애니메이션 요소를 접목하는 등 주요 시설 및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게 연일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인 △씨앗을 찾아 떠나는 스피릿 넘치는 4D 어트랙션 '시크릿 어드벤처' △유미의 세포들과 꼬마 우주인이 함께하는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 △AI 두다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두다톡' 등의 프로그램이 인기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이곳을 찾은 어린이들은 거대한 '정원 놀이동산'을 만끽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24개 읍면동 캐릭터와 순천만습지 생태계를 모티브로 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퍼레이드도 운영 첫 날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또 야간 수상 퍼레이드와 정원관람을 2시간 코스로 구성한 '나이트 가든 투어'는 시범운영 첫 달 전량 매진되는 역대급 인기를 과시했다.

정원을 찾은 관람객들은 "꽃과 나무를 보며 힐링하고,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도 즐길 수 있어 하루 종일 신나고 재밌었다", "우주선 모양의 스페이스 브릿지, 눈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 5주 만에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의 기록을 세웠다.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은 관람객들의 모습. 순천시 제공

이 시원해지는 스페이스 허브 등 즐길거리가 정말 많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관람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순천만국가정원이 '보는 정원'에서 '즐

기는 정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며 "다가오는 여름에는 물놀이터 및 개울길 광장 등 시원한 여름 정원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니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 '섬의 날' 유치 위한 주민의견 청취 여수시, 세계섬박람회 홍보

여수시가 '제7회 섬의 날' 국가행사 유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섬의 날'은 매년 8월8일로,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개최지는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시는 오는 2026년 9월 여수세계섬박람회 한 달 전인 2026년 8월에 '제7회 섬의 날'을 유치해 섬박람회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 시너지를 극대화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6월까지 섬 주민이 주도하고 관광객 등이 참여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번 간담회는 섬 주민과 섬관련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마련된다.

간담회는 지난달 24일 삼산면을 시작으로 오는 8일 화정면, 23일 돌산읍 등 섬을 다수 보유한 읍·면에서 열리며, 섬의 날 행사 기본방향과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수시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내달 초 한국섬진흥원과 사단법인 한국섬재단을 방문해 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 계획 수립을 완료 후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참여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기자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성료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 김다정

보성군은 전통 판소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개최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는 '제47회 보성다향대축제' 기간 중 보성군문화예술회관 및 보성판소리성지에서 진행됐으며, 전국 각지에서 모인 판소리 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명창부 대상인 대통령상은 김다정(41·여)씨에게 돌아갔으며, 트로피와 함께 4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고수 경연대회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을 수상한 명고부 대상의 영예는 이강토(25)씨가 차지했으며, 1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주요 경연 외에도 보성판소리성지에서 보성소리의 명맥을 이어가고 후학을 양성한 명창들을 기리는 추모제, 다양한 국악 축하공연, 차소리 시화전, 전통악기 만들기 체험, 캐리커처, 먹거리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명창부 본선 및 시상식을 보성군 관내 마을회관에 실시간으로 영상 송출하는 서비스가 제공됐다는 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양기림기자



## 단일의대 공모강행 공동입장 발표 순천시, 합당한 방안 요구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 이병은 국립순천대학교 총장,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구례·곡성(갑) 김문수 국회의원 당선인, 순천·광양·구례·곡성(을) 권항엽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 전남 동·서 지역간 갈등을 초래한 전남도 단일의대 공모 강행에 대한 공동입장문을 7일 발표했다.

이날 노 순천시장은 "전남의대를 둘러싼 전남지역 동·서 간 극한 갈등의 모든 책임은 전남도에 있다"고 말했다.

노 시장은 "전남도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행정이 이번 전남권 의대 문제 사태를 자초했고, 광역 자치단체의 책임인 이해 조정과 갈등 해결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며 "이제라도 모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전남도는 지역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단일의대 공모방식을 채택한 데 이어, 공모방식을 지역 의견수렴 과정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공모방식이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과대학 대학병원 설치 문제는 일반사업처럼 공모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닌 고도의 객관적 데이터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합리적 판단을 요하는 국가의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인 것이다"고 말했다.

공동입장문을 통해 전남권 의대 설립 문제가 전남도의 일방적인 공모 강행으로 좌초되지 않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며, 30년 만에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의대 신설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모든 운영 결과 공개 △도민 동의 △각 지역 정치권, 지역민과 합의의 제시를 제안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시 울촌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2일 울촌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울촌면 어린이주민자치회 발대식'을 진행했다. 여수시 제공

## 여수시 울촌면 주민자치위, 어린이 주민자치위 출범

### 시 최초... 관내 초등학교 15명

여수시 울촌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2일 울촌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울촌면 어린이주민자치회 발대식'과 어린이주민자치회 지원을 위한 울촌초, 울촌파출소와 민·관·학 업무협약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울촌면 어린이 주민자치회'는 여

수시에는 최초로 울촌면 주민자치가 특화사업으로 추진, 관내 울촌초등학교와 협업을 통해 15명의 학생이 위원으로 선발됐다.

이날 행사는 울촌면 주민자치위원 및 사회단체장, 어린이 위원,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주민자치위원 위촉장 수여, 업무 협약식, 어린이 주민자치회 활동계획 설명 등이 진행됐

다. 앞으로 울촌면 어린이주민자치회는 마을탐방활동, 마을 역사관광지도 만들기, 등갯길 가꾸기, 울촌 달빛 시네마 문화행사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울촌면주민자치위를 비롯해 울촌초등학교와 울촌파출소가 적극 도울 예정이다.

여수=이경기기자

## LG화학 여수공장, 디지털 변혁으로 '안전·효율' 챙긴다

### 가동부터 품질 개선까지 AI 도입 작업 효율성 높이고 산재 줄이고

LG화학 여수공장이 석유화학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등 기술을 이용해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디지털 변혁(DX)을 현장에 적극 활용해 작업 효율성 증대 및 산업 재해 감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7일 LG화학 여수공장에 따르면, 최근 '플래어 스택(Flare Stack)' 공정 이상 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작업 효율을 올렸

다. 기존 공장 운전원이 수동으로 처리하던 사항을 AI가 자체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생산 효율과 안전성을 높인 것이다. LG화학 여수공장은 현재 운영 중인 1개 공장과 더불어 추가 5개 공장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 내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기존 고속선 작업자의 기술에 의존해 진행하던 고위험 작업들도 DX가 대체한다. 정비 과정에 DX를 적용해 고도 150M의 높은 설비 등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을 고성능 드론으로 검사하고, 고압 설비 세정·가압등의 위험 작업을 완전

자동화 기계가 수행한다. 아울러 생산된 제품의 품질을 검사할 때에도 DX가 적용된다. AI 분류 시스템을 도입해 검사원 간 편차를 감소시키고 작업 효율성을 증대해 품질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LG화학여수공장 관계자는 "LG화학 여수공장은 제품 생산부터 설비 유지보수, 품질 검사에 이르기까지 생산 라인 전반에 DX를 적용하여 스마트 플랜트(Smart Plant)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신체적·정신적 한계로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Human Error) 방지를 통해 작업 안전성 및 생산 효율성을 확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기자